

광주 온 안희정 충남지사 인터뷰

“親盧는 보통명사.. 갈등원인 만들지 말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일 “문재인, 김두관 등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지와 소신을 밝히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도 정치권에서 자꾸 ‘친노 간 경쟁구도’라는 정치적 프레임만 만들려는 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이날 광주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위해 광주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야권연대는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현재 야권연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야권연대해야 성공

는 시대적 요구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김두관 등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친노 분화 움직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친노는 정파나 정치세력이 아니다. 정파를 고집하는 사람도 없다. 대한민국 모두가 친노라고 생각한다. ‘친노’는 이제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라고 본다. 자꾸 정치권에서 정치적 프레임만 만들어 갈등 원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

-야권연대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정치세력 간에 잘 지내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시대적 과제를 진보

진영에서 낼 때만이 연대와 만남이 증폭력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진보진영이건, 보수진영이건 국민이 원하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연대도 하고, 단결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입장에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의 야권연대는 시대적 요구와 거리가 멀다고 느껴진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나.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풀 문제를 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 언제부터 다른 정당들이 통합진보당 미래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에게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문제다. 국민 모두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이제 답을 내면 된다.

지방분권 활성화 위한

광역지자체 연대 강화

-광주와 충남의 교류활성화 방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사이에 연대와 교류를 강화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21세기는 국가와 공무원, 행정지도력만 가지고는 지방정부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없다. 행정혁신과 지방정부 혁신의 길에 대해 많은 심의를 교류했으면 좋겠다.

광주시는 도시행정, 충남은 농촌지역에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지방정부 혁신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연대의 틀을 강화하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회, 세종시로 이전해야”

강운태 시장 충남도청 특강

강운태 광주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4일 충남도청과 광주시청에서 교차특강을 갖고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지방정부 혁신 등에 대해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우리 사회의 최대의 현안 과제는 남북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과 대립”이라고 지적한 뒤 충남과 광주에서부터 ‘원-코리아(One Korea), 원-드림(One Dream)운동’을 선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인류

문명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등불국가로 도약할 때”라며 “남북평화통일 운동, 코리아 희망봉사 운동, 원-패밀리 운동, 지역분권 및 균형운동 등 4가지 분야의 ‘원-코리아, 원-드림운동’을 펼쳐가자”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남북평화통일 운동’과 관련해 “광주시가 추진 중인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날 특강에서 ‘종합재산세 신설’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을 12월 대선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강에 앞서 가진 충남도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4일 충남도청에서 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광주, 충남,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국회의 세중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평가를 받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이날 오전 광주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1세기 지

방정부 혁신의 길’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펼쳤다. 안 지사는 “행정의 위기는 대선 후보들이 국회의 세중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평가를 받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이지리아 여객기 추락 153명 숨져

라고스 인구 밀집지로 지상 사망자도 40여명



승객과 승무원 153명을 태운 나이지리아 국내선 여객기 3일(현지시간) 경제중심 도시 라고스의 인구 밀집지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 사망했다. 또 사고기가 뒀던 지상의 2층 건물에서도 불에 탄 시신 10여구가 수습되는 등 지상에서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승객과 승무원 153명을 태운 나이지리아 국내선 여객기 3일(현지시간) 경제중심 도시 라고스의 인구 밀집지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 사망했다.

또 사고기가 뒀던 지상의 2층 건물에서도 불에 탄 시신 10여구가 수습되는 등 지상에서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민간 항공사인 다나항공 소속의 보잉 MD83기는 이날 수도 아부자를 떠나 라고스 무르탈라 무하메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착륙을 앞두고 공항 외곽의 주거지인 이주 이사가 지역의 2층 건물에 추락, 화염에 휩싸였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인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사고기 조종사가 추락 직전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관제탑에 보냈다고 말했다. 사고기는 동체로 착륙을 시

도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항공사 측은 승객 147명과 승무원 6명 등 탑승객 전원 사망했다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중국대사관 측은 탑승자 중에 최소 4명의 중국인이 포함됐음을 확인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AFP통신은 구조대원들이 추락 현장의 건물 잔해에서 시신 10구 가량을 수습하는 등 지상에서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항공당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상 사망자만 4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목적자들은 사고 여객기가 약 5분간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저고도로 비행하던 중 주거지역으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목적자인 유수프 바바투데(26)는 “비행기는 계속 흔들렸다”며 “조종사가 비행기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지만 추락했고 곧 화염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추락 현장은 버려진 사고기의 날개들이 흩어져 있는 등 참혹한 모습이며 수천명의 주민들이 몰려들어 구조관계자들이 현장 통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 20년 만에 최악의 항공사고를 겪은 나이지리아의 국력 저하를 대령은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3일간의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을 약속했다.

나이지리아 최대도시로 인구 약 1500만명이 거주하는 라고스는 이날 맑고 화창한 날씨였다. /연합뉴스

日 사린가스 테러범 17년만에 검거

40대 옴진리교 간부

일본에서 1995년 3월 일어난 사상 최악의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사건의 실행범 중 하나로 지명수배를 받았던 ‘옴(Aum)진리교’의 간부 17년 만에 검거됐다고 수사 소식통이 3일 밝혔다.

소식통은 이날 기쿠치를 가나자와(神奈川)현 사가미하라(相模原)시에서 붙잡았다고 전했다. 옴진리교의 핵심 간부인 히라타 코토(平田信·47)가 작년 12월 31일 자정 직전 16년여 동안 도쿄 끝에 기쿠치 나오키(菊地直子·40)가 17년 만에 검거됐다고 수사 소식통이 3일 밝혔다.

아직 검거하지 못한 옴진리교 간부는 다카하시 가쓰야(高橋克也·54)가 유일하다.

기쿠치는 1995년 3월 20일 아침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57) 등과 공모, 도쿄 시내 지하철 3개 노선의 차량 5군데에 맹독성 사린가스를 뿌려 승객 11명을 살해하고 약 5500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옴진리교 재판은 1995년 시작 후 16년 만에 교주 아사하라 등 13명의 사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中, 히말라야 8천 m산 3개 추가 발견

중국 과학원은 히말라야 지역에서 8,000m를 넘는 산이 3개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은 네팔의 동(東)안나푸르나봉이 8,013m, 중국과 카슈미르 경계에 위치한 센터봉이 8,011m, 티베트에 위치한 서(西)시

사망마봉이 8,008m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화통신(新華通社)이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구상에서 해발 고도 8,000m 이상의 산은 지금까지 알려진 14개에서 17개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또 8,000m 이상 봉우리는 모두 39개로 늘었다. 중국 학자들은 8,000m 이상인 17개 개의 지도를 모두 완성했으며 조만간 책으로 엮어 발간할 예정이다.

중국인들은 지난 1980년대부터 현장 실측과 사진자료 등을 통해 히말라야 산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히말라야 지역에 대한 중국의 권리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Dawa Auction' (다와옥션)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Daein Dong Sam Il Bu Dong San' (대인동삼일부동산) featuring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Chigi Cheol Gongin Jung Gae Sa Sa Mu So'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featuring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Sang Gwa Won Rong Mae Mae' (상가/원룸 매매)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aeon Bu Dong San' (가은 부동산)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